

2025 11
통권 307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 -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 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전국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짝을 티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여인석 가브리엘라
(모전동 본당 레지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 6)

성경 말씀은 청송 본당 김미행 수산나(신앙대학10기 재학생) 자매님이 자필로 써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듣고, 기도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라틴어 강좌에서 만나게 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새기며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힘차게 노력중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2장

증대되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

20.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저는 현재 환경이 붕괴되는 과정의 바탕이 되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의 삶과 활동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이 왜곡되어 현실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되었음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마치 실재와 선과 진리가 이러한 기술과 경제의 힘에서 저절로 생겨난다고” 여기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논리적인 결과로 “여기에서 인간은 무한 성장 또는 제약 없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쉽사리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기술자들은 이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초대 교구장 두봉 주교 서임식”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69년 5월 29일, 로마교황청에서 신생 교구로서 안동교구 설정을 확정하고, 두봉 신부를 초대 교구장 주교로 임명하자, 안동교구 관할교회에서는 1969년 7월 5일에 안동교구 설정 및 두봉 주교 서품 및 취임식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신생 교구 관할 18개 본당 대표자들이 안동 본당에 모여 결성한 교구설정 및 두봉 주교 서품과 취임식 준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문으로는 당시 안동감목대리구장이었던 구인덕 신부, 지도 신부는 각 본당의 주임신부, 위원장에는 안동본당의 류한상 베드로 회장, 위원장에는 상주 서문동 본당의 김유헌 야고보 회장, 점촌본당의 황상기 도미니코 회장, 봉화본당의 정태중 베드로 회장 등이 맡았다.

준비위원회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행사 진행 중 예산 약 769,620을 교구 내 신자 1인당 30원씩을 각 본당 신자 수대로 할당하여 배정하고, 착좌식 행사비의 예산서(안동 본당 위원회 안)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켰으며, 행사 준비 관계는 일체 안동본당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1969년 7월 행사 준비 관계부서 및 임원으로는 우선 총지휘 준비 위원장으로 류한상 베드로, 총무부장은 김영재 바오로, 재무부장은 손대룡 바오로, 섭외 부장은 윤태영 클레멘스, 시설부장은 권태식 베드로, 전례부장은 김기덕 사베리오로 선정하였고, 각 부 요원을 평신도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하기로 하였다.

당시 각 부서가 각기 관장하는 사무 및 예산서는 별지를 통하여 첨부하였고, 부서 편성표도 완성하였다. 총지휘 준비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무 부서원은

이원중 요아킴, 배규환 마태오, 김경래 바오로, 김 바르톨로메오, 송수범 필마노 등이 선정되었고, 재무 부서원으로는 홍영표 마태오, 이만우 스테파노, 홍세규 바르나바, 김종덕 안토니오 등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시설 부서원으로는 이덕희 이나시오, 고 바오로, 박점소 마티아 등이 선정되었고, 전례 부서원으로는 류강하 베드로 부제 및 교구 내 부제. 신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성가대가 운용되었는데, 성가대 총지휘는 안종배, 박 레티치가 선임되었으며, <육군 제36사단 군악대>와 밴드부 10여 명이 참여하여 도합 60여 명으로 꾸려졌다. 또한 안동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진 걸스카우트 40여 명이 행사안내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발송한 초청장은 1,393매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안동교구 후보로 모시고, 1969년 7월 25일(사도 성 야고보 축일) 안동 상지전문대학 교정에서 개최한 주교 서임식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주례로 대(大)미사 중에 거행하였다. 주교단과 사제단의 입장 행렬에 이어서 말씀의 전례로 시작된 미사 가운데 두봉 신부의 주교서임 및 착좌식이 거행되었다.

먼저 교구 상서 국장이었던 이길준 바오로 신부의 주교 임명장 낭독에 이어 주례자인 김수환 추기경은 훈시를 통하여 교구 신자들에게 “주교들이 안수로써 주교단에 받아들이는 두봉 주교를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봉사자를 하느님 신비의 관리자로서 존경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새 주교를 향해서는 “주교라는 말은 다스리는 것보다 봉사하는 직무이니,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형제적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라.”하고 당부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신임교구장의 주교직 승낙과 교구장 취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다.

“한 음, 한 음으로 걸어온 믿음의 길”

상주지구 청년회 총무
계림동 본당 이다솜 안젤라

안녕하세요. 상주지구 청년회 총무 이다솜 안젤라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지하게 걸어온 저의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혼인성사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며,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당은 제게 익숙한 공간이었고, 주일마다 드리는 미사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언제나 전례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9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당 반주를 맡을 친구가 없었는데, 서툴렀던 저에게 본당 수녀님께서 “안젤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오른손만으로도라도 시작해 보자.” 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처음 반주를 맡았고,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 해야 하니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맡은 역할에 충실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사 중에 연주하는 때 순간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실수가 다른 이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정성을 다해 임합니다.



저는 성가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주하며 묵상할 때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불안함을 다독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전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온 신앙의 시간입니다. 미사 때 반주석에 앉으면 처음 시작했던 어린 시절의 저 자신이 떠오릅니다. 매번 떨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늘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모읍니다.

물론 저의 신앙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진심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지(荔枝)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뷔페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특이한 과일이 있다. 겉껍은 얇은 껍질에 구슬 모양의 과일로 냉동한 걸 녹인 거라 까려면 손이 시리고 흰 과육 안에 커다란 흑갈색 씨앗이 들어있고 맛도 멍멍해서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래서 구색 갖추기로 둔 게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과일 리치(Lychee)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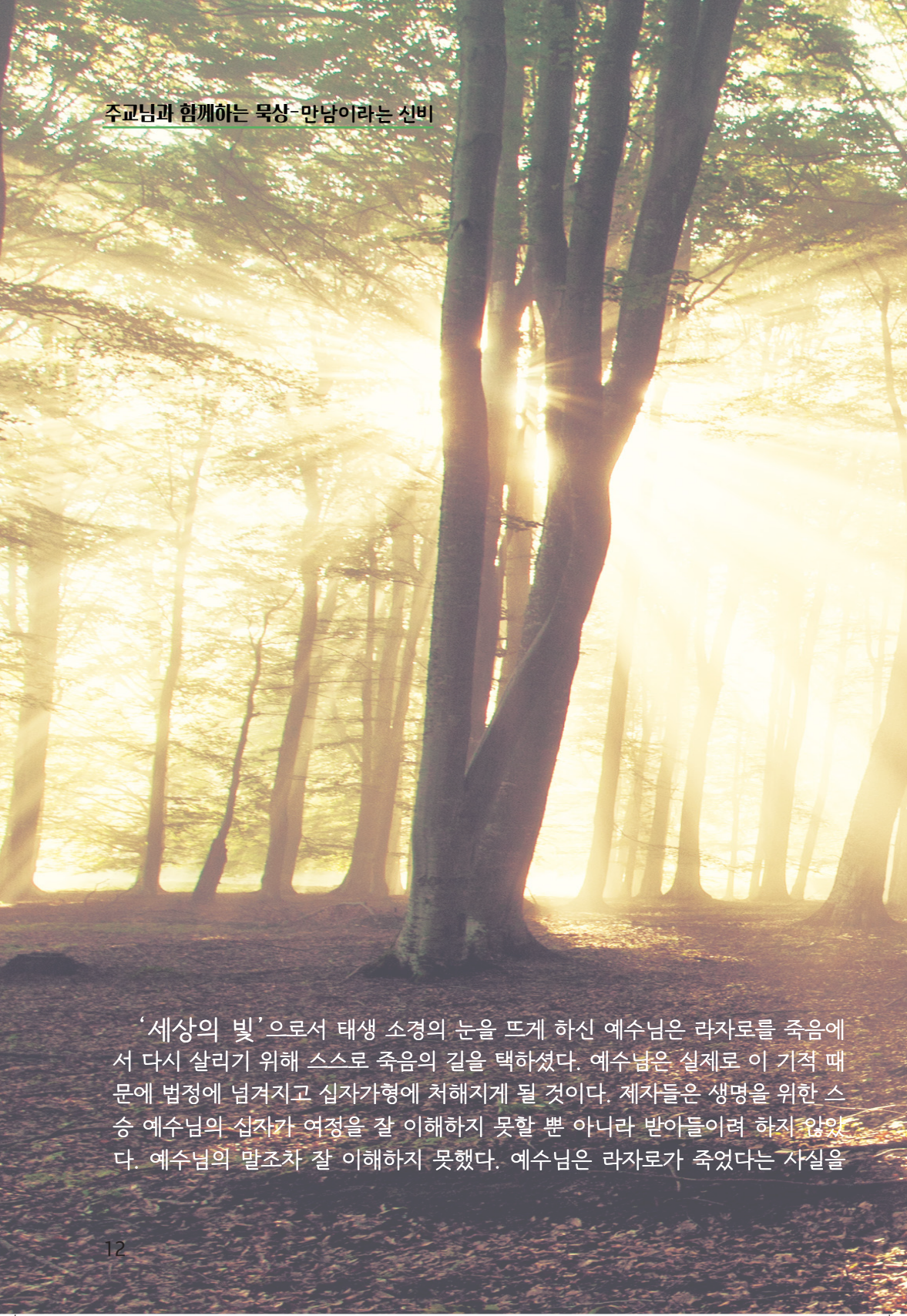
리치는 여지(荔枝)라는 이름의 아열대성 과일로 중국 남부 푸젠(福建), 광시(廣西), 하이난(海南)에서도 나지만 광둥(廣東)성이 주산지다. 4월에 꽃이 피고 6월 말부터 8월초 까지가 익은 열매가 나오는 데 양이 엄청나다. 하지만 보관성이 떨어져 딱 그 시기에만 제철 과일로 먹을 수 있다. 가지에서 열매를 따면 하루 만에 색이 변하고 이틀 지나면 향이 떨어지고 사흘부터는 맛이 변하고, 나흘 지나면 상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가지와 이별한다’는 뜻인 이지(離枝)라고 불리던 것이 리치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리치 산지가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냉동 리치가 유통되면서 일 년 내내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선한 리치와 냉동리치는 맛과 향이 천양지차라 홀대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1,300년 전인 8세기 중엽 중국 당나라 시절에 이 리치를 산지에서 무려 1,200km나 떨어진 먼 지역에서 배달 시켜 먹은 희대의 미인이 있었는데 양귀비다. 당나라 수도 장안(지금의 서안)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리치였



지만 현종의 총애를 받는 양귀비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환관 고력사(高力士)가 역참으로 운송해서 양귀비에게 갖다 바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변질되기 쉬운 리치를 남방 산지에서 멀리 장안까지 이송하려면 최대한 빠른 길로 가야 했고 말은 전 속력으로 달려야 했다. 역참을 이용하여 대엿새를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 달리기 했는데 때로는 말이 논밭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있어 농작물을 짓밟았고, 산과 물을 건너 험난한 길을 달려야 했기에 운송 과정 중에 낙마하여 죽는 병사들도 많았다. 게다가 목숨 걸고 운반했어도 리치가 상하면 처벌 받았으니 백성과 병사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안록산의 난(755년)이 일어나고 현종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양귀비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자결할 수밖에 없었고 백거이는 장한가(長恨歌)에서 그 슬픈 사랑을 노래했다.

양귀비가 여지(리치)를 좋아한 이유는 맛과 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만 예방과 미용에 도움이 되어서였다. 풍만한 몸매의 소유자인 양귀비는 체중관리에 늘 신경을 써야 했는데 리치도 그 중의 하나였다. 리치는 달지만 100g당 70kcal로 칼로리가 극히 적다. 게다가 지방 함량이 적으며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은 배변 활동을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촉진 시키는데 특히 하이포글리신(Hypoglycin)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라는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하여 과식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린다. 리치가 뷔페식당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세상의 빛’으로서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라자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기적 때문에 법정에 넘겨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생명을 위한 스승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조차 잘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밝히면서 타보로 산의 '영광스러운 변모'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표
징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리지로는 죽었다. 내기 기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거한다 이제 리지로에게 기거.” (요한 11, 14-15)

만남이라는 신비, 권력주 요한 크라스토모 주교 지음

가은 본당 전곡공소

Q : 전곡 공소 역사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저는 이곳에 시집오면서 영세 받은 지 49년 됐어요. 1924년 무렵인가, 아주 오래 전 막달레나 할머니께서는 이곳 유교 사상을 가진 집안으로 시집을 오실 때 성경 두 권과 묵주 하나를 곁에 숨겨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항상 묵주가 손에 들려 있었고 성경과 기도책도 항상 지니고 다니시며 동네 할머니들께 전교하셨는데 거의 이 동네에 계신 모든 분을 전교하셨지요. 해서 20명이 넘는 정도로 신자들이 많이 생겼고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영세를 받고 외지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성당에 다니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몇 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른들이 성당에 나간다고 꾸중을 많이 하여 다툼도 많았지만 결국 허락하셔서 성당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공소를 일구어 놓았는데 지금은 어른들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은 연세가 100살이 되어가는 분들이라 봉성체를 가끔하고 있습니다.

교우 2 : 저희 시어머니도 외지에서 시집오셨는데 그때는 교우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아버님하고 시조모님을 성당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어머니도 나오시게 되었고 열심히 봉사도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신자 수가 많이 줄어서 저라도 주일마다 꼭 참석하고 있는데 자꾸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Q : 현재 공소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3 : 현재 집은 서울이고요, 직장은 또 구미라서 주중에 이곳으로 옵니다. 모친이 계셔서 2주에 한 번은 이쪽으로 오고 한 번은 서울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자분들이 예전에는 많으셨는데 지금은 차츰 줄어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공소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공소에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우리 공소에 오라고 압력을 넣으셔서ㅎㅎ.. 어제도 서울 갔다가 10시 30분에 차를 타고 도착하니 거의 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지금도 공소가 좀 오래 유지되도록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공소 좀 살려달라고~~~

교우 4 : 저는 이곳에 온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어디든지 처음 가면 배타적이기



도 하고 동화되기가 어려운데 우리 동네가 너무 아름답고 성당의 분위기가 너무 가정적이고 좋아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영세는 받지 못했지만 이곳으로 오고부터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제가 많이 안착할 수 있었고, 현재 교리를 받고 있는 중인데 12월에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우 5 :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는 진작에 성당에 다니셨는데 저는 여러가지 핑계로 성당에 다니지 않다가 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세례를 받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면서 이제 뿌리를 좀 찾았다고 할까요? 그동안 손주들 돌보느라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었는데 성당을 제대로 다니면서 안정감을 찾은 기분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 우리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6 : 저는 30대에 세례를 받고 나서 15년 정도 성당에 잘 다니다가 냉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귀농을 하게 되면서 성당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공소 분위기가 너무 친절하고 좋아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소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교우 7 : 저희 어머니가 원래 여기가 친정이었는데 결혼해서 혼배성사를 받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 한지도 지금은 27년이 지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당에 나오는 매주가 감동이고 감사여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소는 사랑으로 가득한 공소입니다. 모두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느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곳이 바로 우리 공소입니다. 보시기에도 모두가 사랑하잖아요. 우리공소 모두가 사랑이에요.

찬미받으소서 202항-210항

- 202항 인류가 ()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 203항 시장이 상품 판매를 위하여 강박적 소비주의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에, 사람들은 과잉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합리화된 계획과 기계로 만든 규격화된 상품이 ()하는 대로 ()을 구매하고 삶의 양식을 받아들입니다.
- 204항 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식 안에 머물 때 ()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나) 우리는 엄청난 기상 이변이나 커다란 자연재해의 위협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에서 비롯되는 참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 205항 우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참자유를 향한 ()에 나설 수 있습니다.
- 206항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인 행위입니다.
- 207항 우리 시대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외를 일깨우고 ()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삶의 흥겨운 축제를 위하여 노력한 때로 기억되도록 합시다.
- 208항 모든 형태의 자기중심성과 자아도취를 ()하는 자기 초월의 근본 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모든 관심의 바탕이 됩니다.
- 209항 오늘날 문화와 생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210항 생태적 균형의 다양한 단계의 회복도 추구합니다. 곧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연대의 차원에서는 다른 이들과, 자연의 차원에서는 모든 살아 있는 것과, 영적으로는 하느님과 ()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태교육은 신비이신 분을 향한 도약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11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술	도	가	수	미	열	지	공
야	덕	사	회	위	기	속	통
라	적	아	수	담	새	가	유
생	팽	리	선	탐	로	능	서
달	활	랑	화	욕	운	성	공
나	고	용	래	밥	길	허	습
강	돌	랑	품	돌	조	관	유
요	추	속	거	부	고	화	장

9월 당첨자

이정희 글라라(예천 본당)

최경숙 요안나(계림동 본당) 임용길 베네딕토(계림동 본당)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7 - 핵발전소 없는 세상 만들기 2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함창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과 강물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를 냉각수로 쓰는 핵발전 운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조만간 많은 나라에서 원자로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핵발전이 몇 년째 냉각수용 강물 온도 상승으로 인해 여름철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냉각수 공급은 핵발전 가동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핵연료를 식히면서 데워진 냉각수가 배출되면서 수온이 다시 올라가고, 그로 인해 냉각수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원자로를 멈춰 세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 사고도 지진해일로 비상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그리고 근대문명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니 근대문명의 폭거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핵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용 후 안정화 되는데 수십만~수십억년 이상 소요되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분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핀란드 온칼로(Onkalo) 처분장만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1. 핵 발전의 원리

모든 물질의 구성요소인 원자(atom)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nucleus)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핵발전이라 생각하는 것은, 원자핵에 속도가 낮은 중성자를 인

위적으로 집어넣어 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입니다. 물의 낙하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수력발전이고, 바람을 이용한 것은 풍력 발전이고,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핵발전입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처음부터 전기 생산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자폭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연인원 약 60만명이 동원되었고 총비용이 약 50조원이 들어간 맨하탄 계획(Manhattan Project)이 바로 그것입니다. 2차대전 중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자치령이 참여한 핵무기 개발 계획의 시초입니다. 불과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초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0년대 원폭 기술은 잠수함에 적용되었는데 연료를 오랫동안 갈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핵에너지였던 것입니다. 핵연료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든 후 먼저 터빈을 돌리면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땅 위로 가지고 온 게 핵발전소입니다. 프로펠러를 돌린 터빈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원자로의 종류는 개념적으로 수십 가지 형태이지만 상용화된 원자로 형태는 3~4가지입니다.

2. 우라늄의 핵 분열 원리

자연계에는 방사성 물질 약 40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은 1,000여종에 이릅니다. 숫자로 표시되면서 약간의 질량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열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대단히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우라늄도 그렇습니다. 우라늄 원자 한 개를 두 개로 쪼개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쪼개질 때 중성자가 2개 이상 방출됩니다. 그러면 각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을 때립니다. 거기서 또 쪼개지며 4개 이상의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즉 백만분의 1초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성자가 우라늄을 빨리 때리면 폭탄이 되고 안정적으로 때리면 핵발전소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성자 속도를 늦춰주는 감속재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너무 높아 식혀야 하기 때문에 냉각재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냉각재로 사용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10년 내 국내 원자로 8기가 가동 중단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한수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동공소 십자가

(1920년대 경, 가로11.3cm * 세로 9.9cm * 높이 28cm)

명동공소는 1920년대 후반 안동본당의 구역으로 설립되었다가 1982년 태화동본당 소속으로 폐쇄된 공소이다.

이 십자가는 명동공소 초대회장인 전상태 요셉 회장이 공소 초기부터 사용하던 십자가이다. 공소에서 사용하던 작은 십자가들이 더러 남아 있으나 어디에 두면서 사용하였는지 그동안 의문이였다. 그 용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이다. 작은 십자가를 제대나 탁상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십자가 받침대를 직접 만들어 걸어두고 사용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십자가 받침대는 집에서 만들어 소박한 느낌과 그 위에 떨어진 촛농의 흔적들이 오랜 세월 공경과 염원을 담은 선조들의 기도가 배여 있음을 느낀다. 걸려있는 작은 십자가는 1800년대 전형적인 라틴형 십자가로 황동의 십자 테두리에 십자나무를 속에 채우고 황동의 고상을 박은 것으로 초기 순교자들의 유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여인석 가브리엘라
모전동 본당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전동 본당 여인석 가브리엘라입니다. 30세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레지오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 혼인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부친으로 인해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집이 폭격을 당하자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6.25가 발발하여 외국 군인들이 많이 들어오자 딸 가진 부모님의 걱정으로 서둘러 중매쟁이의 소개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혼인하였습니다.

세례

첫째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에 세례를 받으신 친정어머니의 권유와 도움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8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수백 문항에 달하는 교리를 암송하여 신부님과의 일대일 문답을 통과해야 세례를 주셨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며 외우곤 했지요. 독일 신부님께서 사목하시던 시절이었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엄청 엄격해서 물음에 답을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레지오 입단

어느 날 한 교우가 레지오 입단을 권유해서 가입하였는데 정 단원과 협조 단원이 같이 앉을 수 없었기에 저는 따로 앉아 6개월의 수련기를 보낸 뒤 선서를 하고 입단하였습니다. 레지오 활동으로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출산하던 시절이라 아기 출산을 돕는 산파 역할도 많이 했고 이웃집 일손

을 돕기도 하고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신부님께서 옥수수나 식용유, 우유 등을 원조받아 오시면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습
니다. 어느 해는 한 해 세례자 수가 380명에 이르기도 했지요. 또 병자 가정을 돕기도 하고 문맹자들이 많아 노인들의 교리 공부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로 이어지는 삶

남편과는 중매로 혼인하였는데 중매쟁이의 말과는 현실이 너무 달라서 결혼 생활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나쁘거나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십자고상이나 성가책도 여러 번 마당에 내팽개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로도 속을 많이 썩였지요. 이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죽어라 기도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며 힘들 때 마다 기도애 매달리다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더군요.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대소변을 받아 내가며 집에서 간병을 하였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한 그 남편을 통해 기도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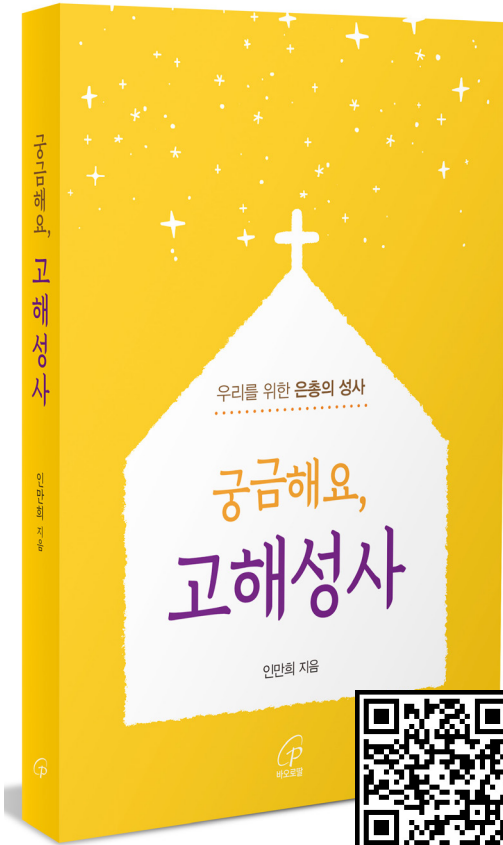
감사함

일제 강점기를 거쳐 어린 나이에 말이 낫선 한국으로의 이주와 6.25 전쟁, 힘든 결혼 생활을 지나면서도 세례를 받고 90세가 넘는 지금까지 레지오 활동을 이어 오면서 늘 간부를 맡아왔는데 한번은 마음 편히 평단원으로 활동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통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는 뿌듯함과 큰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궁금해요, 고해성사

인만희 지음 | 176쪽 | 12,000원



고해성사에 대한 45가지 물음에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준다.

고해성사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 몸과 마음과 정신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성찰임을 일깨운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순간순간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예비 신자와 새 신자는 물론 모든 신자의 재교육에 도움을 준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윤정엽 세례자 요한 신부
휴천동 본당 주임

+ 찬미 예수님

어느새 가을도 서서히 물들어가고 이제 만물이 차가운 겨울을 준비하는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것이 청소년기까지는 무척 멀리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 자신이 젊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친구처럼, 언제 어느 때 함부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친하게 지냈던 동료 사제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포사목을 하던 몇 년 전, 제 동기 신부가 교통사고로 인해 갑자기 선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기분을 실감했습니다. 함께 서품받은 동료 친구들 중 가장 친한 친구였고 서로 많이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창 신부가 죽기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를 하며 미국에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허망하게 선종했다는 소식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난 후, 제가 미국에서 사목하고 있

는 이 상황과 절친하게 지낸 동료 사제를 젊은 나이에 하느님께서 불러가신 모든 일이 원망스러웠고, 특히 장례미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제 상황이 너무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귀국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그 친구가 묻혀 있는 성직자 묘원이었습니다. 한참 비석을 보고 또 보면서 기도하고 나니, 시편 27장 1절의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 친구와 이런 대화를 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나는 한 평생 사제로 살다가 성직자 묘원에 묻히고 싶다.” 이 말을 너무도 빨리 그대로 실천한 친구에게 저 역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 역시 한 평생 사제로 살다가 성직자 묘원에 묻힐테니 나중에 가서 다시 보자”. 사제로 서품 받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에 주님께서 불러가신 동료 친구 사제를 생각하며 위령의 달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루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 주님 종들인 사제와 우리 모든 신자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령성월, 하느님께 맡기는 우리의 사랑

김정수 그레고리오
연구2, 송현동 본당

사랑하는 안동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를 살아오며 저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제를 앞두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인간의 유한함과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희망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에 의지하며, 하느님께 제 삶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위령성월을 맞아 이 편지가 교우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큰 슬픔 속에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매년 11월이 되면 묘지를 찾아 묵주기도를 바친다며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묵주기도를 드리다 보니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지금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계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을 살려 준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이 고백을 듣고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맡길 때 잃은 이들과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령성월은 단지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희생은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길로 바라보는 은총을 줍니다. 가정에서 바치는 작은 기도,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위령 미사, 그리고 개인 묵상은 모두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 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희망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위령성월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힘입니다.

위령성월을 지내는 동안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맡기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성실히 준비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교구, 가정, 공동체 위에 풍성히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소서.

주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아멘.

예비신학생 9월 모임

9월 21일(주일) 송현동성당과 풋살장에서 예비신학생 9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16명의 예비신학생들과 신학생들이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풋살을 즐겼습니다. 서로 몸을 부대끼고 함께 땀흘리며, 예비신학생들간의 형제애와 돈독함이 한층 더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느님을 향하여 드리는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저녁기도를 통해, 감사함을 기도 안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비신학생들이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 림

1.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일 시 : 11월 16일(주일) 14:00

장 소 : 교구청

2. 2026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권양일	10,000	정경자	20,000	신미란	10,000
가 은	516,000	김건화	10,000	정재식	50,000	양수모	10,000
계 림 동	628,000	김경란	10,000	정태진	20,000	이길선	10,000
모 전 동	688,000	김경란	10,000	조기섭	20,000	이영섭	20,000
목 성 동	1,545,000	김경림	10,000	조원준	10,000	전정희	5,000
문 경	310,000	김경수	50,000	최영옥	10,000	정옥남	10,000
송 현 동	2,000,000	김근희	5,000	탁인자	30,000	최은정	10,000
안 계	915,000	김길자	50,000	황상호	30,000	최인숙	10,000
옥 산	1,119,000	김은경	20,000			현희성	10,000
울 진	905,000	김정란	40,000	월 모 입 편			
의 성	1,636,000	김정은	20,000	강면식	20,000	성 분 도 치 과	
함 창	330,000	김현정	20,000	김명숙	240,000		100,000
		김혜경	10,000	김애숙	50,000		
교구 내 기타		박승철	10,000	설영숙	10,000	안 동 신 협	
김정현 신부	10,000	박종대	10,000	심재임	20,000		100,000
백동수 신부	10,000	변진의	10,000	이순연	20,000		
서동호 신부	20,000	서효식	30,000	조영인	50,000	은총의 거울 Pr	
안영배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최금주	50,000		25,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정양모 신부	100,000	신용찬	50,000	이 길 선 편		재속프란치스코회	
정철환 신부	10,000	안명숙	20,000	강명희	5,000		1,000,000
박보라	10,000	안안택	10,000	권순옥	10,000		
박정렬	10,000	위은숙	10,000	김중향	5,000	정의의 거울 Pr	
서영림	10,000	이귀호	10,000	김지은	10,000		20,000
신동섭	20,000	이임영	50,000	나양수	30,000		
이가엘	10,000	이정숙	20,000	박영신	10,000		
		이호숙	10,000	백형숙	10,000		
타교구 개인		장준영	10,000	변우경	5,000		
강윤순	5,000	장희익	40,000	송 경	1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편이

“내 아들 르겔 내 고를 르겔 2 아내를 기용,
“아들 고리디를 사기여 슬프 리능
물고 사아, 아원관”

이름이 주신시요.
늘드일 수 관아를 고를 르겔 사
고로인요, 기물과 원래인요.
제가 깨닫게 해 주소서.
르겔은 것이 근아가는 것인
관관한 아들의 르겔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주신시요.
느려몽를 펼쳐내며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이신 주님, 단신이 먼저 가신 그 르겔
누설고 려됩니다.
주신 곳으로 외로이 물로 려가야 할 것만 같아
저 르겔고 르겔고 가는 것이...
아오나 주님, 느려됩니다.

저 몸 뒤에 단신이 계신 르겔 저는 믿습니다.
지금, 곧 또는 것조차 힘이 들고 정신도 혼미하오나
주님, 저만치 죽음의 그림자가 어슬거립니다.

조기 여자울만 골품 르겔능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